

8차 최고가격, 7차 최고가로 동결

- 물가민생 고려 동결,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
- 25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 중동상황에 따른 조정 가능성 열어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5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8차 최고가격은 7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7.23일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불대까지 상승하였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 볼 때 국제유가는 배럴당 브렌트 82불, WTI 77불, 두바이 75불로, 아직까지 6월 평균(브렌트 84불, WTI 82불, 두바이 80불)보다 낮은 수준이다.

* 국제유가(\$/B): 브렌트 (7.1주) 72 → (7.2주) 75 → (7.3주) 85 → (7.23) 101
WTI (7.1주) 69 → (7.2주) 71 → (7.3주) 80 → (7.23) 92
두바이 (7.1주) 66 → (7.2주) 68 → (7.3주) 78 → (7.23) 97

** 국제휘발유가(\$/B): (7.1주) 97 → (7.2주) 95 → (7.3주) 105 → (7.23) 125
(3월) 129 → (4월) 128 → (5월) 130 → (6월) 108 → (7월) 103
국제경유가(\$/B): (7.1주) 115 → (7.2주) 122 → (7.3주) 145 → (7.23) 168
(3월) 193 → (4월) 196 → (5월) 156 → (6월) 126 → (7월) 136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2.50% → 2.75%)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중동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하여 7월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이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이재익 (044-203-5213)
			사무관	김만식 (044-203-5215)

